별별 프로젝트
NEWS LETTER
부평 문화다양성 별별 프로젝트
VOL. 5
부평구문화재단 |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 2024. 12. DEC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부평구 문화다양성 별별 프로젝트

글.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다양성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다. 만약 세상 모든 것이 같은 모습과 향기 그리고 행동마저도 같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만약 세상에 똑같은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아는 세상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와 당신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모습을 가진다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타인과 구분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 내가 남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양성과 함께 해왔다. 다양성이 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상을 가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확산을 통해,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 사회 모든 기관이 대부분 다양성 확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활동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다양성을 확산하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규격화되고, 정형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다. 단일민족 신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체제경쟁을 오래 겪어 왔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어야 하는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다양성 확산은 이제, 다음으로 기회를 미룰 수도, 다른 이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이 시대의 사명이 되었다. 다양성 확산을 통해,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지난 3년간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한 발 한 발 매우 착실히 단계를 올리며 성장해 왔다. 단기간의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기관의 특성상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었다. 다양성 사업을 시작하며 많은 재단이 거치는 시행착오가 있다.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몇 번의 교육과 워크숍으로 성과를 보려는 것이다. 다양성이 가지는 특성상 불가능한 목표다. 그리고 또 하나 다양성 확산 활동에서 고민해야할 점이 있다. 바로, 우리가 처한 환경의 변화 없이 사람만 변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인식 전환은 타인의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은 문화다양성의 특징이 다양성 확산을 쉽지 않게 만든다.

부평아트센터
Bupyeong Arts Center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

2024 문화다양성 강연 프로그램 별별클래스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통해 본 코다와 농문화

다양성은 세상을 만드는 힘!

2022 문화다양성 소모임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2022년 별별프로젝트의 소모임 지원사업으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모임을 구성하고 자신만의 다양성 프로젝트를 만들면, 재단은 필요한 교육과 자문, 그리고 소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진행된 처음 활동에서 가능성이 보였다. 인식 전환과 환경 변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활동이었으며, 타율이 아닌 시민 자율의 활동 보장이 예측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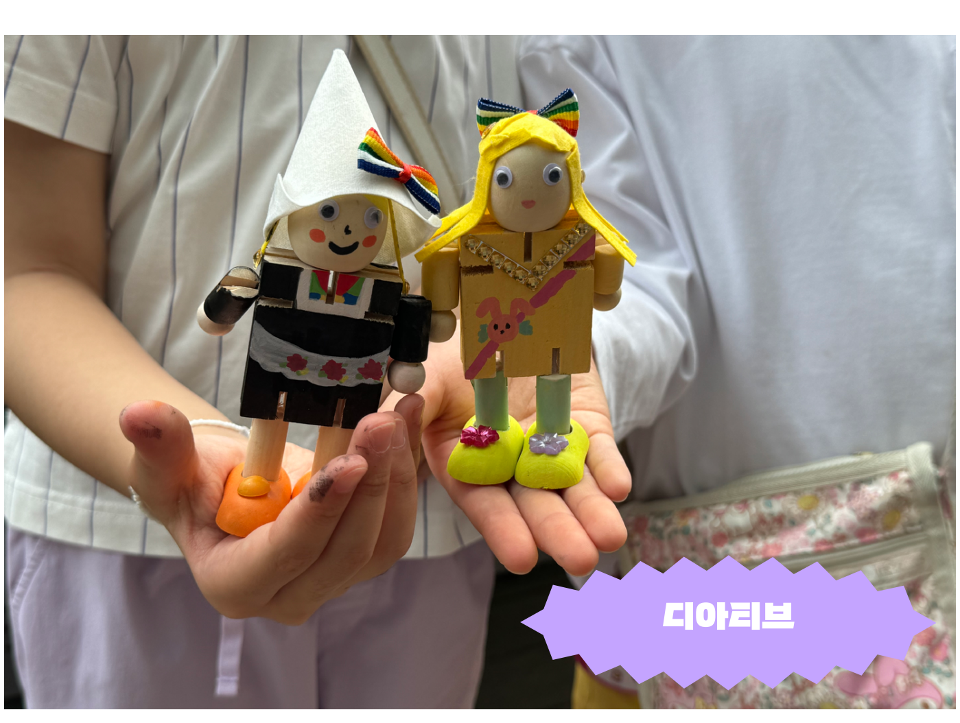
2023 문화다양성 소모임 Cultural taste 활동 사진

2023 문화다양성 소모임 역량강화 교육

2023년에는 이렇게 시작한 시민과 재단과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한 변화의 연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 시민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학습을 원했다. 또한 이 활동이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23년에 진행한 문화다양성 소모임 운영지원과 영상 제작 지원을 하는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다 심화된 학습과 지원이 이루어졌다. 별별콘서트를 만들어 좀 더 대중과 친숙한 분들을 통해 다양성을 확산하는 기회도 가졌다. 2024년 5월에는 두근두근 식탁과 같은 어린이날 축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했다. 가족 단위로 모인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함께 경험하면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 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활동이었다. 이처럼 시민의 자발성에 더해, 다양성에 대한 강의와 워크숍으로 운을 띄우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이 싹 트기 시작했다.

2024 문화다양성 소모임 별별 프로젝트

피쓰메이커



디아리브

부평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미얀마 문화체험

부평미얀마
노동자복지센터

한미서점

2024년으로 이어진 문화다양성 소모임 활동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젊은 층과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가릴것 없이, 매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다. 친구, 가족, 동호회,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양성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인위적으로 재설정된 곳에서 다양성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활 및 활동 기반에서 문화다양성이 확장되었다는 점이 더욱 큰 긍정적인 성과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들

별별프로젝트와 별별콘서트

2023 문화다양성 토크콘서트 별별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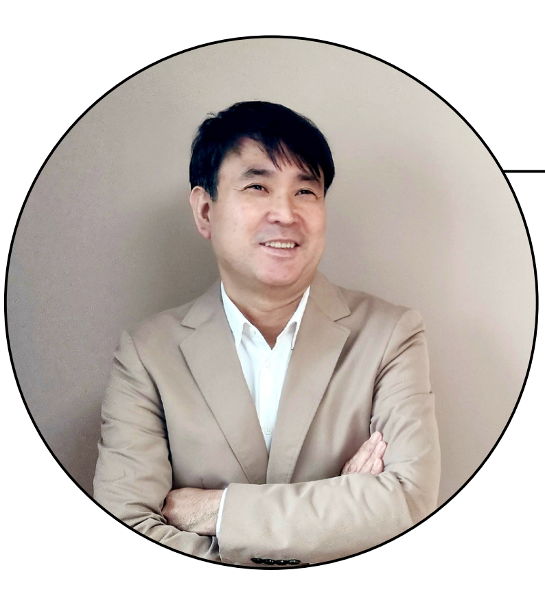
음악 공연에서 더 다양한 참여자를 위한 베리어프리를 실천하게 된 팀, 토론 동아리에서 참여자뿐만 아니라 토론 내용과 방식에서도 다양성을 확장하게 된 팀. 사진 모임에서 행사사진 기록이 아니라 삶의 다양성을 기록하게 된 팀. 봉사활동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관계가 더욱 다양하게 확장된 팀, 부평구에 늘 거주하지만, 한국인과의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미얀마 사람들이 부평시민 활동에 결합한 점까지, 그 성과 또한 자랑할 만하다.

2024 문화다양성 강연 프로그램
별별클래스 <잘먹는 궁리>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구호로는 다양성이 증진되지는 않는다. 국가 사회가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구성원들에게 따라오라고 외치는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천천히 한발 한발, 만나고 교류하고 체험하면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은 자율성과 자발성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활동이 그렇지만, 다양성 활동에 있어,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접근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만을 불러온다.

이런 면에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시민 자율행동의 방식으로 한걸음씩 키워온 문화다양성 소모임 활동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일정한 지원과 자율적인 활동 보장, 전문적인 조언이 있을 때, 어떤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시민들과 재단의 접점,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미래의 과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발, 한발 함께 걸어갔으면 한다.

2024 문화다양성 강연 프로그램
별별클래스 <나만의 고유한 언어를 찾아서>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전문위원

문화다양성 확산과 이주민 인권 활동을 위해 나름 동분서주한다.
시민의 자율적인 힘으로 다양성이 더욱 존중 받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2024
문화다양성 소모임
지원프로그램

별별 프로젝트

부평구문화재단의
<별별 프로젝트>, <별별 클래스>는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각각의
다른 모양이지만 모든 문화들은
특별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여
직접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는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의 장벽을 낮추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